

후지와라 데이 연구의 문제점*

- 서지학적 측면에서 -

박상현**

koreaswiss@hanmail.net

미네자키 토모코***

minetomoko@gmail.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완역본 출간연월에 대한 오류 |
| 2. 발췌번역본에 대한 오류 | 5. 원본 출간연월에 대한 오류 |
| 3. 번역자수에 대한 오류 | 6. 마치며 |

主題語: 후지와라 데이(H Fujiwara Tei), 원본(original), 번역본(translation), 역자(translator),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Flowing stars are alive)

1. 들어가며

일본의 인앙(引揚)서사 곧 귀환서사 가운데 우리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고(故) 후지와라 데이(藤原てい)¹⁾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다. 1949년 일본의 히비야(日比谷)출판사에서 간행된 작품이다.

후지와라 데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는 광복 직후인 1949년부터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번역을 통해서다. 그것도 몇 번에 걸쳐, 몇몇 번역자에 의해 수차례나 소개됐다. 진명인은 1949년에 일본어 원서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일부를 『三十八度線²⁾』이라는 제목으로 잡지 『민성(民聲)³⁾』에 실었다. 같은 해 정광현은 일본어 원서를 『내가 넘은 三八線』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주저자

***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1) 2016년 11월에 98세의 일기로 작고했다.

2) 번역본 제목이 한자(漢字)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기를 존중하여 본고에서도 한자로 표기한다. 이하, 번역본의 제목 표기는 원래 표기를 존중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광복 이후에 많은 잡지가 발간됐다. 잡지 『민성』은 『대조』, 『신천지』, 『학창』, 『신세대』, 『인민』 등과

(수도문화사)이라는 서명으로 출간했고, 한국전쟁 이후인 1964년에는 같은 서명으로 같은 출판사에서 다시 출판했다. 최근숙은 1965년에 일본어 원서를『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세계베스트셀러 선집 5』(휘문출판사)에 실었고, 이것을 1970년에는『20 세기 고발문학선집 6』(휘문출판사)에 재차 수록했다. 권웅은 1971년에 일본어 원서를『국경선 은 셋이나 있었다』라는 서명으로 옮겨『대동아전쟁비사 한국편 8』(노벨문화사)에서 냈고, 위귀정은 2003년에 일본어 원서를 원서의 서명대로『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청미래)로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와 같이 후지와라 데이의『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가 몇 번에 걸쳐, 몇몇 번역자에 의해 거듭 우리말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 일본어 원서에 번역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한국학 연구자와 일본학 연구자도 후지와라 데이의『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 왔는데, 그것은 이후 자세히 인용할 선행연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후지와라 데이의『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에 대한 연구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번역본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원본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fact)에 적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 대체 왜 이런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오류가 발생한 것일까?

본고에서는 먼저 서지학적 측면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보였던 후지와라 데이의『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한국어 번역본⁴⁾ 및 일본어 원본에 대한 기본적인 오류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한 어떤 이유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런 서지학적 오류가 후지와라 데이 연구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하고자 한다.

2. 발췌번역본에 대한 오류

발췌번역본인『三十八度線』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논문은 김예림의「종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이다. 그는 이 글에서

함께 1946년에 창간됐다.

김영희(2015)『한국전쟁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북스, p.38

4) 여기서는『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했던 발췌번역본인 진명인 역(譯)의『三十八度線』과 첫 완역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광현 역의『내가 넘은 三八線』 그리고 일본어 원본인『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를 주로 검토한다. 단, 정광현의『내가 넘은 三八線』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역본은 아니다. 거의 완역본에 가까운 번역이다. 왜냐하면 후반부의 다섯 개 절을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후술한다.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내용 일부가 남한의 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49년 8월 잡지 『민성』을 통해서다. 「삼십팔도선」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세 개의 소절은 주인공 일행이 38선을 돌파하는 장면을 담은 부분이다. 게재 말미에는 “종전 후 북조선으로 피난하기 일년여에 다시 일본으로 전재민들과 함께 귀환한 실정을 엮은 藤原貞 부인의 장편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일부이다. 그는 세 아이를 다리고⁵⁾ 삼십팔도선을 넘을 때 이려했다고 여실히 기록하고 있다. 日人の 글로만 보아넘기기엔 아까움다.”라는 부기가 덧붙여져 있다. 『민성』에서의 이 짧막한 소개를 시작으로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남한적 수용과 소비 현상의 막이 오른다.⁶⁾

고 말하면서, 『三十八度線』은 일본어 원본에서 ‘세 소절’만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런데 실제로 『三十八度線』을 검토해보면, 이것은 ‘세 소절’이 아니라 ‘다섯 소절’로 되어 있다. 그 다섯 소절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市邊里에 닫다
 「풀」 자리잡
 내를 걷느다
 再會
 三十八度線을 突破하다.⁷⁾

그렇다면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까? 연구자의 단순 실수였을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 김예림은 앞서 인용했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적는다.

게재 말미(『三十八度線』의 말마라는 의미. 인용자)에는 “종전 후 북조선으로 피난하기 일년여에 다시 일본으로 전재민들과 함께 귀환한 실정을 엮은 藤原貞 부인의 장편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일부이다. 그는 세 아이를 다리고 삼십팔도선을 넘을 때 이려했다고 여실히 기록하고 있다. 日人の 글로만 보아넘기기엔 아까움다.”라는 부기가 덧붙여져 있다.⁸⁾

5) 원문 그대로. ‘데리고’의 오타 혹은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인용문은 현행 맞춤법 등에 맞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원문을 존중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6) 김예림(2012)「종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상허학보』 제34집, 상허학회, p.195

덧붙여 인용문에 보이는 강조 표시는 인용자가 한 것이다. 이하 같음.

7) 후지와라 데이 저, 진명인 역(1949)『三十八度線』『민성』제5권 제8호, 고려문화사, pp.64-67

8) 김예림(2012), 앞의 논문, p.195

그리고 위의 논문 주26에 “『민성』, 1949.8, 69쪽⁹⁾”이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三十八度線』은 64쪽에서 67쪽에 걸쳐 있고, 실제로 『三十八度線』의 부기(附記)는 67쪽 말미에 나온다. 69쪽에는 『三十八度線』의 내용이 없다.

결국 김예림의 지적, 즉 『三十八度線』은 일본어 원본에서 세 소절이 번역된 것이라는 지적, 또한 부기가 잡지 『민성』의 69쪽에 실려 있다는 지적은 잘못됐다. 이와 같이 김예림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적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의 실수는 단순 실수였다기보다는 어쩌면 그가 진명인 번역본인 『三十八度線』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글에서 『三十八度線』에 관한 정보를 얻은 후, 그 정보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논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재인용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김예림의 반복적 오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위의 논문에서

『내가 넘은 삼팔선』(정광현이 수도문화사에서 출간한 완역본 『내가 넘은 삼팔선』을 가리킴. 인용자)은 1949년 일본어 원본을 중간중간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즉 완역본은 아닌 것이다. 저자의 후기, 오사라기 지로(大佛次郎)의 서문을 비롯하여 몇몇 절들을 번역에서 제외했고 특히 조선 땅을 벗어나 일본으로 돌아간 주인공이 다시 가족을 만나기까지를 기록한 마지막 4개 절도 모두 빠져 있다.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절의 선택이나 생략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원본의 세세한 에피소드들을 줄이고, 국내시장을 염두에 두어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생략한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¹⁰⁾

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오류가 발견된다. 그는 위 인용문에서 정광현이 일본어 원본을 우리말로 옮길 때 ‘마지막 4개 절’을 뺐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오류다. 정광현 번역본 『내가 넘은 三八線』의 본문 마지막 절은 ‘마왕의 정체’¹¹⁾이지만, 일본어 원본에는 ‘마왕의 정체(魔王の正体)’ 이후에 절이 4개가 아니라 5개가 있다. 다음과 같다.

9) 김예림(2012), 위의 논문, p.195

10) 김예림(2012), 앞의 논문, p.196

11) 후지와라 데이 저, 정광현 역(1950)『내가 넘은 三八線』수도문화사, p.246

정광현 번역본인 『내가 넘은 三八線』의 초판은 1949년 12월로 판단된다. 여기서 ‘판단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현재 초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1950년 3월에 간행된 2쇄(a second edition)이다. 초판에 대한 전면적 수정·보완은 1964년에 출간된 『내가 넘은 三八線』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1949년 12월에 출간된 초판과 약 3개월 후인 1950년 3월에 출간된 것 사이에는 변화가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으로 정광현 번역본인 『내가 넘은 三八線』을 인용할 때는 현시점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1950년 3월에 나온 것을 차용한다.

四千円の仮持参人
上陸の日
上陸第二日
博多から諫訪へ
あゝ遂に両親に抱かれて¹²⁾

이와 같은 실수도 일본어 원본인『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있을 수 없는 기본적인 오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 번역자수에 대한 오류

그럼 지금부터 제3장과 제4장에 걸쳐 후지와라 데이의 일본어 원본을 최초로 완역했다고 볼 수 있는『내가 넘은 三八線』에 대한 연구자들의 오류를 살펴보자.

『내가 넘은 三八線』은 출판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1950년에 6쇄를, 1952년에는 10쇄를 찍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64년에는 15쇄가 나왔다.¹³⁾

『내가 넘은 三八線』이 국내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던 것은 여러 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1945년 이후 우리가 경험했던 38선의 월경 체험, 주인공인 후지와라 데이에게서 느낄 수 있는 모성애, 식민지였던 일본인의 후일담 등에 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예림은 앞에서 몇 차례 인용했던 「종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에서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가 남한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수용될 수 있었던 정황과 관련해서는 38선 월경체험이 만연해 있던 1945년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중요하게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¹⁴⁾

고 말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다른 논문인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12) 藤原てり(1949)『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日比谷出版社, p.8

13) 1964년판부터는 별로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종현은 2015년 5월 14일자 한겨레신문 온라인판 기사에서 한국사회가 일본 여인의 고생담쯤은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미증유의 고난 곧 한국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종현(2015)「38선이 만든 한 권의 베스트셀러」<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91346.html>(검색일: 2018.2.13)

14) 김예림(2012), 앞의 논문, p.197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에서

일본인 가족의 귀환 기록이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용자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폐주하는 구제국의 주민을 목격하고자 하는 욕망 못지않게, 체험의 유사성이나 친근성에 기반한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주로 인간적 고난, 모성애, 인간사의 애증과 같은 ‘보편화’ 기제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었다.¹⁵⁾

고 지적한다.

정종현은 한겨례신문 기사에서

식민자였던 일본인들의 후일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 것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였다.¹⁶⁾

고 밝힌다.

그런데 방금 인용한 정종현은 『내가 넘은 三八線』의 번역자에 대해 흥미로운 말을 한다. 즉, 그¹⁷⁾는 후지와라 데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를 번역한 정광현의 『내가 넘은 三八線』에 대해 “이 책은 합동통신사 기자 3명이 하루 저녁 동안 번역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⁸⁾고 적는다. 또한 김영희도 『한국전쟁과 미디어』에서 “이 책은 1949년 11월 합동통신 기자 3명이 하루 저녁에 나눠 번역했는데”라고 말하고 있다.¹⁹⁾ 『내가 넘은 三八線』이 ‘신문기자들의 공동 번역’이었다는 지적이다.²⁰⁾

15) 김예림(2010)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제29집, 상허학회, pp.343-344

16) 정종현(2015), 앞의 신문기사

17) 정종현은 신문기자가 아니다. 국문학 연구자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다. 이 기사를 쓸 당시 그는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HK교수였다. 또한 그는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민족서사·‘지리적’ 귀환을 중심으로」(『비교문학』 제40집, 한국비교문학회, 2006, pp.131-157)와 같은 귀환서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귀환서사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던 학자다.

18) 정종현(2015), 앞의 신문기사

19) 김영희(2015), 앞의 책, p.38

20)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3인 공역’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양평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1985년에 발간한 『베스트셀러 이야기』에서 “合同通信의 기자 3인이 하루 저녁에 번역해냈는데”라고 말한다. 결국 정종현과 김영희는 양평의 글을 읽고 ‘3인 공역’설(說)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평이 최초로 주장한 ‘3인 공역’설도 그대로 신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양평도 사실 관계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는 『베스트셀러 이야기』에서 후지와라 데이는 귀국 후 일본 잡지인 『塔』에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는 제목으로 그 과정(귀국 과정, 인용자)을 썼는데”라고 적고 있다. 그가 말하는 잡지는 1949년 2월에 발간된 『塔』이다. 하지만 여기에 실려 있는 후지와라의 작품은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가 아니다. 『三十八度線』이다.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1950년도판 『내가 넘은 三八線』과 초판을 수정·보완한 1964년도판 『내가 넘은 三八線』 그 어디에도 번역자가 3명이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예컨대 1950년도판 『내가 넘은 三八線』의 표지를 보면, 저자는 후지와라 데이, 역자는 정광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표지>21)

그렇다면 정종현과 김영희는 왜 ‘3인 공역’ 곧 ‘합동통신사 기자 3인 공역’이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넘은 三八線』에는 ‘소개하는 말’과 ‘권하는 말’이 들어 있다. ‘소개하는 말’은 ‘역자의 말’이고, ‘권하는 말’은 ‘추천사’다. ‘소개하는 말’에는 신문기자가 2명 등장한다. 한 명은 번역자인 합동통신사 사회부장었던 정광현이고, 다른 한 명은 동료 기자인 고제경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는 말’에서 아래와 같이 나온다.

밤을 도와 읽었다. 신문기자인 내(번역자인 정광현을 가리킴. 인용자)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썼을까? 그것은 다만 직업적의식에서 나온것이지만 한편, 내가 느낀 그것을 제3자에게 읽히고 싶다는 충동도 느꼈다. 번역을 끝냄에 있어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동료 고제경(高濟經) 씨에게 깊이 감사한 뜻을 드려마지않는다.²²⁾

양평(1985)『베스트셀러 이야기』우석, p.53
藤原貞(1949)『塔』羽田書房, pp.89-96

21) 1949년 12월 19일자 동아일보 광고란에 의하면 이 번역서의 사이즈는 46판 곧 13cm×18.5cm였고, 종이는 고급갱지(更紙)였다. 총 페이지는 268쪽이고, 가격은 450원이었다.
동아일보(1949.12.19)

22) 후지와라 데이 저, 정광현 역(1950)『내가 넘은 三八線』수도문화사, pp.2-4

또한 ‘권하는 말’에는 연합통신사 기자인 전홍진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날, 정형(정광현 기자를 가리킴. 인용자), 고형(고제경 기자를 지칭함. 인용자)이 읽기를 권하기에 읽어보았다. 같은 느낌이 돌아다²³⁾. 번역하여 읽혀보았으면 하기에, 좋겠다 하였다. 그것은 누가 썼든 그속에 얼커진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상할수 있을것인가? 하는 때문이었다. … … 이제, 정형의 수고로 이책이 우리말로 번역됨에 즈음하여 “사람”을 찾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더구나 아들과 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아 자리를 비려 한 말을 적는다.²⁴⁾

‘소개하는 말’에서 번역자인 정광현은 고제경 기자에게 감사함을 표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공역(共譯)’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추천사를 쓴 전홍진도 ‘권하는 말’에서 ‘정형의 수고로’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됐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정광현이 번역했다는 말이다.

결국 『내가 넘은 三八線』은 정종현과 김영희가 말하는 ‘합동통신사 기자 3인 공역’이 아니라, 정광현의 ‘단독 번역’이었다. 정종현과 김영희의 주장은 ‘소개하는 말’과 ‘권하는 말’에 나오는 내용을 잘못 이해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넘은 三八線』을 제대로 읽지 않고 풍문을 근거로 『내가 넘은 三八線』번역을 ‘합동통신사 기자 3인 공역’으로 이해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후자가 더 신뢰가 가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합동통신사 기자 3명이 일본어 원서를 하루 저녁 동안 번역했다고 정종현과 김영희가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넘은 三八線』을 ‘하루 저녁 동안 번역’했는지 혹은 몇 달에 걸쳐 번역했는지의 여부는 오직 번역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정종현과 김영희가 『내가 넘은 三八線』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완역본 출간연월에 대한 오류

연구자들은 정광현의 번역본인 『내가 넘은 三八線』의 초판 출간 시기가 1949년, 1950년, 1951년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우선 1949년이라고 밝히고 있는 글부터 검토해보자. 김예림은 2010년에 발표한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에서

23) 원문 그대로. ‘들었다’의 오타라고 생각한다.

24) 후지와라 데이 저, 정광현 역(1950), 위의 책, pp.7-8

일본인의 귀환 기록 가운데 공전의 인기를 얻은 후지와라 데이(藤原てい)의『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가 1949년 한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대중적 호응을 얻은 현상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²⁵⁾

고 말하고, 또한 「포스트콜로니얼의 어떤 복잡한 월경적 연애에 관하여: 구식민지와 구제국 그리고 기억-기록의 정치학」에서도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는『내가 넘은 삼팔선』(수도문화사, 1949)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남한의 독서시장에 진입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인양 시기의 일본인이라는 타자의 형상은 남한의 재현장에서는 드문 어떤 것이 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갔다.²⁶⁾

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계다가 김예림과 정종현은『내가 넘은 三八線』의 출간이 1949년 11월이라고 월(月)까지 정확히 명시한다. 김예림은 2012년에 게재한「종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에서

1949년 11월, 이 텍스트(1949년 8월 잡지『민성』에 실린『三十八度線』을 가리킴. 인용자)는『내가 넘은 삼팔선』이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으로 발간되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1950년 2월에 이미 6쇄를 찍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⁷⁾

고 말하고, 정종현은 한겨례신문에 실은 기사에서

수도문화사는 1949년 11월 후지와라 데이가 쓴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를 번역해 <내가 넘은 삼팔선>으로 제목을 고쳐 간행했다.²⁸⁾

고 적고 있다.

25) 김예림(2010), 앞의 논문(「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자의 정치성), p.343

26) 김예림(2011) 「포스트콜로니얼의 어떤 복잡한 월경적 연애에 관하여: 구식민지와 구제국 그리고 기억-기록의 정치학」서강인문논총 제31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74

27) 김예림(2012), 앞의 논문(「종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 p.195

28) 정종현(2015), 앞의 신문기사

한편 서영아²⁹⁾는 2007년 2월 28일자 동아일보 온라인 기사에서 『내가 넘은 三八線』의 출간 시기를 1950년대라고 말한다.

한국에서도 1950년대에 ‘내가 넘은 38선’이란 제목으로, 2003년에는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청미래)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다.³⁰⁾

윤상인, 임기현 등은 『내가 넘은 三八線』이 1950년에 출판됐다고 정확히 밝힌다. 윤상인·김근성·강우원용·이한정은 『일본문학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1945~2005』에서

『내가 넘은 三八線(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 정광현, 首都文化社, 1950.³¹⁾

이라고 적고 있고, 임기현도 「해방공간에서의 잔류 일본인 귀환 문제:『잔등』, 『압록강』, 『요코이야기』,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를 중심으로」에서

1950년 수도문화사에서 『내가 넘은 38선』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³²⁾

고 밝힌다.

또 다른 한편 김영희는 『한국전쟁과 미디어』에서 『내가 넘은 三八線』이 1951년에 출판됐다고 밝힌다.

정광현이 번역해 『내가 넘은 삼팔선(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이라는 제목으로 1951년 수도문화사에서 발간한 책이다.³³⁾

요컨대 선행연구자들은 정광현의 번역본인 『내가 넘은 三八線』의 출간시기에 대해 1949년, 1949년 11월, 1950년대, 1950년, 1951년과 같이 5가지로 언급한다. 그렇다면 과연 정광현의 번역본인 『내가 넘은 三八線』의 초판 출간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

29) 당시 서영아는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이었다.

30) 서영아(2007)「1945년 한국, 귀국길 오른 한 일본인 가족이야기」

[http://news.donga.com/View?gid=8412338&date=20070228\(검색일: 2018.2.13.\)](http://news.donga.com/View?gid=8412338&date=20070228(검색일: 2018.2.13.))

31) 윤상인, 김근성, 강우원용, 이한정(2008)『일본문학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1945~2005』소명출판, p.351

32) 임기현(2010)「해방공간에서의 잔류 일본인 귀환 문제:『잔등』, 『압록강』, 『요코이야기』,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를 중심으로」『한국언어문학』제72집, 한국언어문학회, p.459

33) 김영희(2015), 앞의 책, p.38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949년 11월 30일 경향신문에 실린 『내가 넘은 三八線』 출간에 관한 광고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글은 敗戰日本女性의 實錄이다. 一九四五年八月 그들倭人們은 마침내 東亞에서의 殺戮戰을 終戰이라는 말로써 끝내버리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生命線(?)³⁴⁾에서 歷史上未曾有의 民族大異動圖를 그리었다. 이글은 科學者의 아내인 藤原데이 女史가 惡質軍閥의 지독한 餘毒과 苦難 속에서 限無는 母性愛를 글이며 滿洲로 부터 三十八度線을 넘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글속에서 무서운 運命을 堪耐하며 살어나온 人間의 모습이 素朴하게 描寫되며 苦惱에 어린 한폭의 그림과도 같음을 보게 된다. 읽으시라! 人間群像의 本然의 姿態를!! 文學界의 大旋風을 이르킨 問題作!! 日本讀書界의 最高販賣部數獲得! 日活攝影所에서 映畫化着手! 近來 記錄文學의 最高編 四六版 260頁 高級更紙使用 紛 450圓 送料 50圓 明日發賣! 乞期待!!³⁵⁾

1949년 11월 30일은 11월의 말일(末日)이었다. 그런데 위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 ‘明日發賣’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곧 『내가 넘은 三八線』이 ‘내일 출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넘은 三八線』의 초판 출간은 1949년 12월 1일이 된다.³⁶⁾ 『내가 넘은 三八線』의 초판 ‘출간연월(年月)’에 대한 선행연구자의 언급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³⁷⁾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오류가 발생한 것일까? 정광현은 번역본 『내가 넘은 三八線』의 ‘소개하는 말’에는

번역을 끝냄에 있어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동료 고제경(高濟經) 씨에게 깊이 감사한 뜻을 드려마지않는다.

四二二八年 十一月 번역한 이³⁸⁾

라고 적고 있다. 단기 4228년은 서기 1949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인용문은 번역자인 정광현이 1949년 11월에 썼다는 말이 된다.

34) 원문 그대로.

35) 경향신문(1949.11.30)

36) 신문에 소개된 서평도 12월 이후에야 나온다. 1949년 12월 19일자 동아일보 광고란에 의하면 가장 빠른 서평은 12월 9일자 경향신문에 실렸다. 이후 12월 10일에는 연합신문과 국도(國都)신문 및 자유신문에, 12월 13일에는 서울신문과 태양신문에 각각 서평이 실렸다.
동아일보(1949.12.19)

37) 단, 1949년이라고 언급한 선행연구는 ‘출판연도(年度)’에 한해서는 틀리지 않았다.

38) 후지와라 데이 저, 정광현 역(1950), 앞의 책, p.4

또한 『내가 넘은 三八線』의 추천사를 쓴 전홍진은 ‘권하는 말’에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아제, 정형의 수고로 이책이 우리말로 번역됨에 즈음하여 “사람”을 찾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더구나 아들과 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아 자리를 비려 한 말을 적는다.

단기 四二二八年 입동날³⁹⁾

라고 말한다. 당시 입동은 11월 8일이었다.⁴⁰⁾

정광현이 번역한 『내가 넘은 三八線』의 초판본은 1949년 12월 1일에 발간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것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해당하는 『내가 넘은 三八線』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950년 3월에 출간된 것이다.

결국 선행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한 것은 1950년 이후에 출간된 『내가 넘은 三八線』이었다고 추정된다. 1949년 12월 1일에 출간된 초판 『내가 넘은 三八線』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연구자들은 1949년 12월에 발간된 초판 『내가 넘은 三八線』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1950년 이후에 출간된 『내가 넘은 三八線』의 ‘소개하는 말’이나 ‘권하는 말’을 참조하여 초판이 1949년 11월에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이다.

5. 원본 출간연월에 대한 오류

김예림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번역본 『내가 넘은 三八線』의 일본어 원본인 『流れ星は生きている』의 출간 연도를 1949년이고 명시한다. 김예림은 「종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에서

『내가 넘은 삼팔선』은 1949년 일본어 원본을 중간중간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즉 완역본이 아닌 것이다. 저자의 후기, 오사라기 지료(大佛次郎)의 서문을 비롯하여 몇몇 절들을 번역에서 제외했고 특히 조선 땅을 벗어나 일본으로 돌아간 주인공이 다시 가족을 만나기까지를 기록한 마지막 4개 절도 모두 빠져 있다.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절의 선택이나 생략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원본의 세세한 에피소드를 줄이고, 국내시장을 염두에 두어 일본을 배경으로

39) 후지와라 데이 저, 위의 책, pp.7-8

40) <http://iseopi.iptime.org/cgi-bin/calsum.cgi?year=1949>(검색일: 201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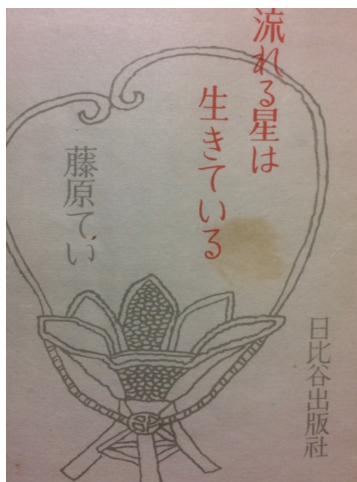
하는 이야기들을 생략한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⁴¹⁾

고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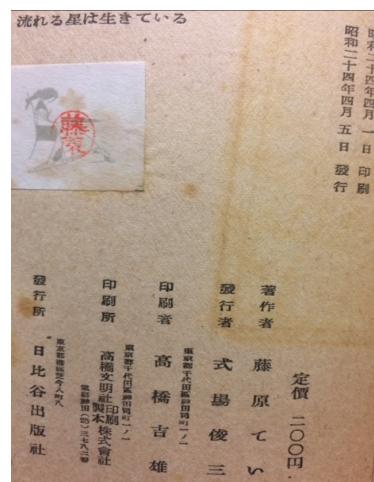
한편 최준호는 일본어로 쓴 논문인 「일본인 식민자의 「인양체험기」：「반복」과 「연속」의 흐름」(「日本人植民者の「引揚体験記」：「反復」と「連續」の流れ」)에서 일본어 원본인『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가 1949년 10월에 출간됐다고 월(月)까지 정확히 표시한다.

1949년 10월에 간행되었던 후지와라 데이의『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입니다.⁴²⁾

그렇다면 일본어 원본의 정확한 출간연월은 언제인가? 다음 이미지는 일본어 원본의 표지와 출판연월이 나와 있는 부분이다.



<표지>⁴³⁾



<출판연월>

위 이미지의 오른쪽 상단 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 41) 김예림(2012), 앞의 논문(「종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경신지」), p.196
- 42) 최준호(2012)「日本人植民者の「引揚体験記」：「反復」と「連續」の流れ」『일어일문학』제54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363
참고로 일본어 논문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1949年10月に刊行された藤原ていの『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である。」
- 43) 사이즈는 가로×세로가 12.5cm×18cm였고, 종이는 고급 giấy로 보인다. 한국어 번역본의 사이즈가 13cm×18.5cm였다는 것을 환기해보면, 번역본을 출간할 때 일본어 원본의 사이즈를 의식했던 것 같다.

昭和二十四年四月一日 印刷

昭和二十四年四月五日 發行⁴⁴⁾

소화 24년 곧 1949년 4월 1일에 인쇄했고, 1949년 4월 5일에 발행했다는 것이다. 일본어 원본『내가 넘은 三八線』의 발간은 1949년 4월이었다.

그렇다면 선행연구자들은 왜 일본어 원본의 정확한 발간연월을 몰랐던 것일까?⁴⁵⁾ 일본어 원본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혹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마치며

지금까지 발췌번역본에 대한 오류, 번역자수에 대한 오류, 완역본 출간연월에 대한 오류, 원본 출간연월에 대한 오류를 통해 자세히 살펴봤듯이 후지와라 데이의『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한국어 발췌번역본인『三十八度線』과 완역본『내가 넘은 三八線』 그리고 일본어 원본을 연구했던 선행연구자들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 곧 서지학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보였다.

이와 같은 오류는 선행연구자들이 발췌번역본『三十八度線』, 완역본 초판『내가 넘은 三八線』, 일본어 원본 초판『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각각의 실물을 제대로 보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자들이 이들 실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1949년 8월에 나온『三十八度線』⁴⁶⁾과 1949년 12월에 출간된『내가 넘은 三八線』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실물이 많이 소실됐기 때문이고⁴⁷⁾, 1949년 4월에 출판된 일본어 원본인『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도 한국인 연구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헌이기 때문이다.⁴⁸⁾

선행연구자들이 발췌번역본『三十八度線』, 완역본 초판『내가 넘은 三八線』, 일본어 원본 초판『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실물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결과⁴⁹⁾, 후지와라 데이 연구에

44) 藤原てい(1949)『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日比谷出版社, p.319

45) 단, 1949년이라고 언급했던 김예림은 출판 ‘연도’에 한해서는 틀리지 않았다.

46) 고려대 중앙도서관, 서강대 로욜라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47) 1950년도판『내가 넘은 三八線』은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장면박사기념관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48) 한국에서는 국회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1949년도판이 소장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하다.

49) ‘서지학적 측면에서의 오류가 뭐가 중요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학문적 논증을 필요하지 않은 에세이 같은 글쓰기에서는 허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자가 쓰는 학문적 글쓰기에서 서지학적 사실을

아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예시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성과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게 됐다. 곧 실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얻은 연구이기에 그 성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예컨대 김예림은 앞서 인용했던 「종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에서 정광현이 번역하면서 생략한 부분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면서 일본어 원본의 세세한 에피소드를 줄인 정도, 또한 국내시장을 염두에 두어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생략한 정도라고 단정 짓는다.⁵⁰⁾ 하지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직접 인용하면서 철저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 안타깝게도 김예림의 논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독자로서는 김예림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그는 앞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밸췌번역본, 완역본 출간연월, 원본 출간연월 등에 대해서 오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⁵¹⁾

둘째, 선행연구의 오류로 발생했던 잘못된 정보가 최근에 발표된 글에도 부정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경재는 「만주국 붕괴 이후의 귀환서사 연구: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를 중심으로」에서 『내가 넘은 三八線』은 1950년에 출간됐다는 틀린 정보를 적고 있다.⁵²⁾

셋째, 선행연구자들은 한국어 번역본과 일본어 원본의 출간연월에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이 둘의 출간연월은 당시의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연구테마가 될 수 있다. 1950년 4월 8일자 자유신문에 의하면 공보처는 1950년 6월부로 일본의 과학기술계통의 서적 이외의 일본서적의 번역물 출판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발행된 책의 재판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공보처의 조치는 해방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자유신문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출판계에서 최고의 판매부수를 점하는 일본서적의 번역서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정광현이

정확히 하는 것은 해당 학문연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 50) 김예림(2012), 앞의 논문「종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 p.196
- 51) 번역본에서 원본에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 번역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번역자는 번역할 때 생략, 추가 등과 같은 번역자의 개입을 통해 텍스트에 ‘변용’을 일으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윤식·오인석은 1974년에 을유문화사에서 『국화와 칼』을 번역·출간할 때 영어 원본의 제9장 인정의 세계, 제10장 덕의 딜레마, 제11장 자기 수양이라는 장(章)을 생략하고 번역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원작은 모두 一三장(章)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보다 본질적이라고 생각되는 장만을 골라 一〇장으로 편성한 것이 본 역서(譯書)이다.”라고 밀한다.
- 루스 베네딕트 저, 김윤식·오인석 공역(1974)『국화와 칼』을유문화사, p.3
- 52) 이경재(2015)「만주국 붕괴 이후의 귀환서사 연구 : 채만식의 <소년은 자란다>를 중심으로」『만주연구』제 19집, 만주학회, p.16

번역한 『내가 넘은 三八線』이라고 말한다.⁵³⁾ 『내가 넘은 三八線』은 1949년 12월에 출간됐고, 이것의 일본어 원본인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는 1949년 4월에 나왔다. 번역본과 원본 사이에는 8개월 정도의 시간차 밖에 없다. 해방 직후라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후지와라의 작품이 대단히 빠르게 번역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⁵⁴⁾ 번역서의 출간시기 곧 ‘출판연월’에 대한 주목은 ‘해방공간의 우리 출판문화 및 독서문화’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서지학적 오류로 이와 같은 연구테마의 중요성이 전혀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⁵⁵⁾

【参考文献】

- 김영희(2015)『한국전쟁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북스, p.38
- 김예림(2010)「‘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상 허학보』제29집, 상허학회, pp.343-344
- _____ (2011)『포스트콜로니얼의 어떤 복잡한 월경적 연애에 관하여: 구식민지와 구제국 그리고 기억-기록의 정치학』『서강인문논총』제31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74
- _____ (2012)『종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테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상허학보』제 34집, 상허학회, p.195
- 양평(1985)『베스트셀러 이야기』우석, p.53
- 윤상인, 김근성, 강우원용, 이한정(2008)『일본문학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1945~2005』소명출판, p.351
- 임기현(2010)『해방공간에서의 잔류 일본인 귀환 문제:『잔등』, 『압록강』, 『요코이야기』,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를 중심으로』『한국언어문학』제72집, 한국언어문학회, p.459
- 최준호(2012)『日本人植民者の「引揚体験記: 「反復」と「連続」の流れ」』『일어일문학』제54집, 대한일어일문학 회, p.363
- 후지와라 테이 저, 진명인 역(1949)『三十八度線』『민성』제5권 제8호, 고려문화사, pp.64-67
- 후지와라 테이 저, 정광현 역(1950)『내가 넘은 三八線』수도문화사, p.246
- 경향신문(1949.11.30)
- 동아일보(1949.12.19)
- 자유신문(1950.4.8)
- 서영아(2007)『1945년 한국, 귀국길 오른 한 일본인 가족이야기』,
<http://news.donga.com/View?gid=8412338&date=20070228>(검색일: 2018.2.13)
- 정종현(2015)『38선이 만든 한 권의 베스트셀러』,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91346.html>(검색일: 2018.2.13)
<http://iseopi.ptime.org/cgi-bin/calsum.cgi?year=1949>(검색일: 2018.2.13)

53) 자유신문(1950.4.8)

54) 현재와 같이 특별한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본어 원본이 출간된 이후, 8개월 만에 한국어 번역본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내가 넘은 三八線』이 한국에 빨리 소개됐다는 것이다.

55) 본고를 작성하는데 교신저자는 많은 공헌을 했다. 예컨대 일본어 원본인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입수를 비롯하여 논문 구성, 전개 등에 참여했고,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논문에 관해 주저자와 토론 및 논의를 진행했다.

藤原てり(1949)『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日比谷出版社、p.8

藤原貞(1949)『塔』羽田書房、pp.89-96

논문투고일 : 2018년 03월 19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4월 18일
1차 수정일 : 2018년 05월 04일
2차 수정일 : 2018년 05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5월 17일

<要旨>

후지와라 데이 연구의 문제점

- 서지학적 측면에서 -

박상현·미네자키 토모코

본고에서는 우선 후지와라 데이의『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流れしる星は生きている)』의 한국어 발췌번역본『三十八度線』과 최초 완역본『내가 넘은 三八線』그리고 일본어 원본을 연구했던 선행연구자들이 서지학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보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서지학적 오류가 후지와라 데이의『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했다. 첫째, 선행연구의 오류로 생긴 잘못된 정보가 최근에 발표된 글에도 부정적으로 재생산 되고 있다. 예컨대 이경재는 201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내가 넘은 三八線』은 1950년에 출간됐다는 틀린 정보를 적고 있다. 둘째,『내가 넘은 三八線』은 1949년 12월에 출간됐고, 이것의 일본어 원본은 그해 4월에 나왔다. 번역본과 원본 사이에는 8개월 정도의 시간차 밖에 없다. 해방 직후라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후지와라의 작품이 대단히 빠르게 번역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역서의 출간시기 곧 ‘출판연월’에 대한 주목은 ‘해방공간의 우리 출판문화 및 독서문화’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서지학적 오류로 이와 같은 연구테마의 중요성이 전혀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Problems in Fujiwara's research

- From a bibliographic point of view -

Park, Sang-Hyun ·Minezaki, Tomoko

First of all, I carefully examined what Fujiwara's “Flowing stars are alive” translated in Korean and revealed that there were few mistakes in these prior studies from a bibliographic point of view. Secondly, due to such bibliographic errors, I showed that Fujiwara's “flowing stars are alive” research could be adversely affected. First, wrong information was repeated due to mistakes of preceding research also in recent research conducted. The second, “I crossed the 38th Parallel” was published in December 1949, and this original appeared in April of that year. There was only a time difference of 8 months between the translated document and the original. Considering the situation immediately after being released from Japan, you can see well that it was translated earlier. The attention to “publication time” like “publication date” is considered to be a crucial factor in studying the publishing culture and reading culture in Korea at that time. However, due to bibliographic mistakes in previous research, the importance of such research themes is not recognized.